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2, 4 / 제63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기뻐하면서 너희에게 나의 모성적 축복을 주기를 갈망하며
 너희를 기도로 부른다.
 매일 매일 거룩함 안에서 너희가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가 그 필요함이 되게 하여라.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회개로 부터 멀리 있으니 더욱 노력하거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2012년 3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표지 설명 : 목격증인 이반이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모님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pmm.org@gmail.com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4.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OFM
7. 메주고리에 발현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알레산드로 데리크 바티칸 교황대사
8. 너희는 내 평화의 도구가 되고...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9. 단식은 기도의 영혼이고 자선은 단식의 생명입니다
 성 베드로 크리슬로고 주교
10. 메주고리에와 성모님을 위하여...
 요조 죠브코 신부
13. 제 삶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잔 달슨 부제
16.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린 달슨 (잔 달슨 부제의 딸)
19. 기도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1)
21. 20년 동안 앓던 불치병을 치유시켜 주신 성모님
 마셀 그라프스트롬 세퍼
26. 2012년 성지 순례 안내
27. 십시일반 후원회원 명단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성모님, 선교회 봉사자들의 희생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소서.
- 성모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낙태된 태아들의 영혼을 봉헌합니다.
- 저희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도와주소서.
- ○○과 ○○이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주소서.
- 나의 주님, 끝도 없는 삶의 고통속에서 당신 자비로 구하소서.
- 남편에게 건전한 직업을 주시어 가정이 안정되도록 기도해주소서.
- 가족들을 위하여 제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지난 어려운 일들에 감사드리며, 모두 기도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딸의 영육간의 건강과 특히 관절염의 빠른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첫 손자의 안전한 출산과 큰 딸 가정에 큰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 ○○의 암을 치유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은총을 온 가족에게 주소서.
- 두 딸이 영육간에 건강과 공부를 지속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저의 행동과 딸이 선하지 않아 아버지께 욕되게하고 있으니 회개와 기도의 은총을 주소서.
- 성모님, 형제들이 마음을 열어 화합하여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현재 일어난 모든 문제에 어머니께서 자비의 손길을 주시어 도와주세요.
- 가정을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성모님, 가없는 저희의 간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가정에 위안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이 주신 저의 4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오랫동안 냉담하고 있는 ○○○이 다시 성당에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저희 노부부의 여생을 봉헌하오니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두 딸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 어린 손자의 영혼을 하느님 품에 안아주시고 남은 가족을 위로해 주소서.
- ○○○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날들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불러주세요.
- ○○○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 모든 은인들과 협조단원들의 각 가정에 필요한 축복과 은총을 청하나이다.
- 남편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 그리고 형제간의 화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결혼 후 냉담하고 있는 ○○○를 봉헌하오니 교회로 이끌어 주소서.
-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고, 앉지도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를 봉헌하오니 보살펴 주소서.
- 성모님, 자녀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안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모든 사제들이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거룩한 사제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 가족들의 영육간의 평화와 가정에 평화를 위하여 봉헌합니다.
- 성모님,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를 봉헌하오니 보살펴 주소서.

-
- 4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 1998년 3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묵상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OFM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단식하고 극기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라. 나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지 또는 그분과 그분의 뜻을 거슬러 사는지를 증거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사람임이 드러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8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서는 기도 안에서 당신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수난과 돌아 가심을 묵상하며 그분께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사순 시기에 특별히 포기와 단식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포기, 단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로 지난 한달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자신에게 먼저 물어 보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말씀이 포기하고 단식하려는 결심을 도와주고 나를 축복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이 메시지가 나 자신을 믿음과 사랑의 선물로 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달과 이번 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리야나의 생일날인 3월 18일 성모님의 발현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에 성모님께서 미리야나에게서 발현하셔서 5분 동안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미리야나에게 비밀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축복을 주시며 다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 아들의 평화를 채워 줄 수 있도록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98년 3월 18일)

이 메시지에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밝혀주는 부활의 빛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둠을 피하고, 마음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평화를 향해 열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단식하고 극기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단식은 성서적인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선조자인 모든 예언자들은 단식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들도 성모님을 통하여 믿음과 기도, 단식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단식은 항상 교회의 사명과 함께 존재하였고 모든 성인들은 단식을 통하여 심오한 체험들을 한 증인들입니다. 또한 단식은 항상 성체성사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절제의 은총을 통하여 받는 축복에 대하여 잊고 살아 갑니다. 그러나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단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빵과 물을 의미하는 이 단식을 통하여 특별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만능의 세상에서 단식은 우리의 신체, 육체적인 건강, 영혼의 생명, 특히 정신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며 친히 단식을 실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만으로 단식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식과 기도, 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깨닫게 해줍니다. 단식과 포기는 내적인 자유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단식을 함으로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해방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여라.

성령의 해인 올해 우리는 비록 항구한 기도를 못한다면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매일 이 지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와 교만은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십자가들을 허락하심으로서 우리를 회심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힘은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로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나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가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했을 때 어린 소녀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고 오직 믿는다고,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평화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린 소녀 마리아가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느님의 외아들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의탁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 믿음, 희망과 신뢰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결합되기 위해 가장 확실한 길은 항상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고 가장 작은 것에서도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향을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매우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이번에는 당신의 뜻이 제 뜻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신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평화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평화에서 불신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사랑에서 증오로,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극심한 절망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변함 없는 평화안에서 그분의 신하심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지 또는 그분과 그분의 뜻을 거슬러 사는지를 증거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또는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성모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저의 마음 속에 사랑을 심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지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주어진 것은 바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다." 사랑이라는 말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실천하는 사랑은 모든 만남을 아름다운 소망의 관계를 만들어 주지만 말로만 끝나는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 하여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사람임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은 신앙인들의 표징이고 가장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매우 아픈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 환자가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묵주기도를 5단을 봉헌해주세요.

- 태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 낙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 낙태 종식을 위하여...
- 낙태한 부모들의 치유를 위하여...



"네, 계십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다시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수녀님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하여 당신의 어머니를 버려두고 계시나요?" 마더 테레사는 그 환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말해드리지요."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임을 침묵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사순시기에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단식과 포기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또한 모든 교만과 이기주의와 두려움과 불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곁에 머무는 것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당신께 더욱 가까이 있게 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어 당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내 안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성모님의 메시지가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



메주고리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당신의 참된 평화와 희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열려지기를 기도하나이다.

성모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주님께서 메주고리에의 모든 순례자들과 전세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성령의 해인 올 해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기도를 청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을 어머니이신 당신과 함께 합니다. 아멘. **M**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메주고리에 발현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알레산드로 데리코
바티칸 교황대사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 파견되신 교황청의 알레산드로 데리코 교황대사는 지난주 크로아티아의 일간지 "베체미 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한 조사를 맡고있는 교황청 신앙성성소속의 심사위원회장인 루이니 추기경과 두차례에 걸쳐 메주고리에에 관한 회합을 갖었음을 밝혔다. 또한 지난 해 2011년 11월, 긴시간에 걸친 작업이었던 두분간의 회합에 대하여서도 말했다. 교황 대사는 심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진지하게 조사하고 있음에 찬사를 보냈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알레산드로 데리코 교황 대사는 신앙성성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현 조사위원회의 사명은 결코 모스타에 소재한 관할 교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M**

너희는 내 평화의 도구가 되고...

너희에게 당부하는 단식 / 306 /
1985년 3월16일 사순절

보속과 극기의 길을 걸어라.

오관을 극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몸의 단식을 하기 바란다. 오직 육체적, 물질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행복이라는 기만이 오늘날 허다한 내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으므로, 널리 퍼져 있는 이 오류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순결과 마악의 독이 섞인 음식을 먹고 있는지! 부도덕한 인쇄물 같은 고약한 탁류가 얼마나 두루 확장되고 있는지! 흔히 사회 홍보 수단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양심과 악덕과 음행을 보급하고 죄를 퍼뜨리는 도구가 되어, 이제는 죄를 선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내게 봉헌한 소중한 자녀들인 너희에게, 보속의 큰 힘을 달라고 청한다. 내가 그 힘으로 땀을 쌓아, 극도로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한 이 악의 홍수를 막으리라. 그러니 너희더러 오관 극기를 위해 육체적 단식을 하라는 나의 요구는, 오늘날의 광분하는 쾌락 추구에 반드시 췌기를 막을 필요가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착한 모범으로 너희가 가르쳐야 할 바는 바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4,4; 신명8,3)는 것이다.

정신의 단식으로 온갖 악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다만 선과 은총과 사랑의 음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음식은 바로 너의 정신을 양육하시고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존재에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정신적 단식으로 너희 정신을 모든 오류로부터 온전히 지키기 바

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계시해주신 '진리' 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고귀한 양식인 '성서' 및 특히 예수님의 '복음'에서 자양분을 섭취하여야. 그리고 너희 천상 엄마가 오늘날 여러가지로 주고 있는 메시지들도 받아들여, 그것을 묵상하며 실행하여야.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에 위배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주의 깊게 배척해야 한다. 이것들은 간교하고 위험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서, 너희가 '영세' 때 발한 서약을 충실히 지키며 성장하는데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마음의 단식도 요구되니, 이는 너희 자신과 재물과 피조물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에 대해 마음을 단아 결고 경계함을 뜻한다. 단지 자기만을 생각하며 억제하지 못한 이기심의 밥이 되어, 다른 이들과의 진정한 통교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시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과 돈을 인생 유일의 목표로 삼아 광적인 집착의 노예가 된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들은 다른 많은 악덕과 죄의 근원인 인색으로 말미암아 정력을 소모할 뿐,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엄청난 곤궁에는 마음을 열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만다.

너희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영혼의 단식이다.

이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 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대죄를 모든 악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성찰을 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습관 -매우 유익한 습관이다- 를 되찾기 바란다. 그리고 죄를 짓기 쉬운 기회도 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는 너희 영혼 안에 순결과 은총의 빛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내가 당부하는 이 단식을 실행한다면, 죄악의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벽을 너희 주위에 쌓아 올리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 너희의 극기와 보속의 이 번제물을 바쳐 드림으로써 내 가없는 자녀인 죄인들 상당수를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평화의 도구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주위에 퍼뜨리며 이 천상 엄마가 알려준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이다.

(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단식은 기도의 영혼이고 자선은 단식의 생명입니다.

- 성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서 -



(축일 : 7월 30일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 학자 (406-450년)는 이탈리아의 이몰라 출신으로서 교황 식스토 3세에 의하여 424년 라벤나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성 베드로는 교황 베네딕도 13세에 의하여 교회 박사로 선언되어 공경을 받고 있다.)

형제들이여,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고 신심을 변함없이 유지해 주며 덕행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청하며 자선은 받습니다. 기도, 단식, 그리고 자선,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이고 서로 서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기도의 영혼이고 자선은 단식의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서는 제대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고 다른 두 가지는 갖고 있지 않다면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이는 단식도 해야 하며 단식하는 이는 역시 자선도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가 간청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간청 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청에 자기 귀를 막지 않는 사람을 하느님께서서는 잘 들어주십니다. 단식하는 사람은 단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알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선을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빌려 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절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

은 염치 없는 청원자입니다.

사람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자선의 척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빨리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빠르기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청원이 되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유일한 청원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단식함으로 찾도록 합시다. 우리 영혼을 단식으로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하느님께 바칩시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께 이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단식의 제물을 하느님께 바쳐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는 순수한 제물과 거룩한 제사와 산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댈 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봉헌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단식은 자선의 물을 받지 않으면 싹을 내지 못하고, 자선이 메마를 때 단식도 가뭄을 겪게 됩니다. 자선과 단식의 관계는 비와 땅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닦고 육신을 정결히 하며 악을 뽑아내고 덕행을 심는다 할지라도 자선이라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단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메주고리예와 성모님을 위하여...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메주고리예 성모님과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합니까?

요조신부 : 먼저, 순례자와 여행자는 큰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동정녀께서 발현

하실 때 바위와 돌투성 팻브르도 산(발현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은 성모님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에 진실과 영을 깨닫게 해주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특별한 곳입니다. 순례자들이 발현 산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주시고 평화의 뿌리가 심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순례자들은 무엇보다 겸손하고 순수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성모님께 거짓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된 이들의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순례자들이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고해성사를 할 때 하느님과 화해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받습니다.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예에 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인식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메주고리예의 순례는 변화된 삶의 새로운 출발이고 인내로의 초대입니다. 덧붙여 순례책임자들과 안내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순례자들이 발현산에 갈 때 순례에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들로 마음에 분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

과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고 성모님 발현의 의미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질문 :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 왔을 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까요?

요조신부 : 메주고리예에 오는 사람들중에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포가 만연한 곳에 믿음이 있을 수 없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의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회자되는 공포와 두려움, 증오와 폭력 등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 시로키부리엑에 오신것은 전쟁구호물자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조신부 : 그렇지않아요. 제가 티할리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질문 : 징계를 받으셨다구요?

요조신부 : 네, 주교님은 저를 다른지역으로 옮겨서 고해성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신거지요. 제게는 너무나 큰고통이었습니다.

불신과 편견을 받을지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메주고리에는 보여줍니다.

질문 : 5~6년동안 온 정성으로 돌보시던 마을을 떠나실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요?

요조신부 : 주교님의 결정을 아주 좋지않게 받아드렸죠.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충격과 슬픔이었지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공식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고통스럽지만 떠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다'는... 그때부터 저는 외국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 메주고리예를 키우고 싶었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시급함을 느끼고 이곳 저곳을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싣기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메주고리예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질문 : 1991년 순례자들이 갖고 온 많은 전쟁구호물자를 신부님께서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요조신부 : 일단은 구호물자들을 저장하기 위해 시로키부리엑의 수도원 일부에 천막을 만들었지요. 얼마 뒤, 폐쇄된 공장건물에 구호물자를 비치하고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지역에 분배했어요. 회교도나 크로아티아인을 막론하고 모든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혔으며, 회교도들이 사는 지역 곳곳에도 무료급식소를 열었어요. 특히 이태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순례자들이 음식과 의복을 가득 실은 수송 차량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저와 함께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모든 조직들이 함께 움직여 주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에도 순례자들은 저희들을 도와주었지요. 한번은 티할리나에서 아주 멋진 밉크코트를 입은 이태리 순례자가 떠나는 버스에 오르던 중, 아주 가난한 본당신자를 보고 코트를 벗어주고 스웨터만 입고 떠났습니다! 코트를 받은 그 여인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이태리 순례자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어요. 시로키부리엑에서 누구에게나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끔씩 가짜난민들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었지요.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이런 방식의 분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호물자 배급소와 재활원을 세웠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폄는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받은 것들을 종교나 국가를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이들에게 차별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자주 우리들의 방식을 비난하곤 했지만 세르비아나, 회교계들의 가족이건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크로아티아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못본 척 하나요!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전쟁이 끝난지 몇년이 지난 지금도 회교도와 동방정교 사람들이 자주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 여행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요조신부 :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성모님 발현의 정신에 의한 과정으로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여정이지요. 저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나라나, 장소에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기도와 단식으로 준비하면 만나는 이들에게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몇몇 봉쇄 수도원의 강연에는 3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모든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심어 달라는 지향이 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영육간의 치유와 해답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준비와 만남을 통해 성모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질 때 진정한 믿음과 기도, 희망의 선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 특별히 기억되는 곳이 있으신지요?

요조신부 : 모든 곳이 아름답지만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레바논과 시리아와 세상에서 가장 회교도 신자들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들이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그곳 사람들의 성모님께 대한 사랑은 마치 엄마앞에 있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모세처럼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손에 꽃을 들고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인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모님은 만들어진 대리석상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셨습니다! '내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꽃을 드리고 나의 기도와 사랑, 마음 전체를 드려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나라에서 성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니카라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니카라과는 무척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고, 학교도 없어서 청년이 되어서도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인들이 많

메주고리예를 선택하시고 직접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서 이기주의와 교만과 모함으로 부터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았어요... 그들은 글을 모르지만 성모님께 향한 열정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부님, 우리는 성모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성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성모님께 대한 것은 무엇이나 알고 싶어요." 하고 말했지요. 마치 어린 병아리가 어미 품을 파고 들듯이 말예요.

한번은 볼리비아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연재해로 파괴된 장소였습니다. 대형 나무들이 쓰러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렸으며 건물들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어서 나라 전체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런곳에서 티 없으신 성모성심께 대한 그들의 신심은 대단했습니다. 자연재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을 때 사람들은 피하기 보다는 흘러내리는 진흙속이나 돌위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신심 앞에서 무섭게 흘러 내리던 용암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대단한 신앙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매년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선교회 수녀님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가난하지만 그들은 메주고리예를 삶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주고리예 정신입니다. 저는 제가 방문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제 마음속에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 ...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지에 대한 기적에 대해 신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요조신부 : 기적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981년 의사들과 전문가들에 의하여 메주고리예 '발현증인 아이들'의 건강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판단입니다. 발현 초기에 저도 그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었기에, 이런 의사들의 진단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아이들을 모스타르 병원에 끌어들여 놓고 의사들에게 강제로 아이들이 정신병 증



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쓰라고 협박했다는 말을 듣고 의심을 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성모님의 발현 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편견을 받을지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메주고리예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성모님의 발현에 긍정이나 부정을 하더라도 메주고리예의 표징과 열매들은 진실을 보여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후로 오신 성모님의 초대는 늘 현실적입니다. 메주고리예는 그 은총의 열매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신비차원입니다. 저는 개인의 영성생활과 가정생활이 쇠신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서는우리들의 나약함을 이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마태 12,33,참조)." 사탄은 메주고리예의 진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메주고리예를 증거하는,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도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메주고리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메주고리예가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메주고리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에 대한 사람들의 모략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메주고리예는 저 때문에 수난을 받고 중단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주고리예를 선택하시고 직접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서 이기주의와 교만과 모함으로 부터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M**



제 삶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 경찰서 강력계 형사에서 종신부제로 변화된 삶 -

잔 탐슨 부제 (펜실바니아 포코노의 '고기를 낚는 어부 성베드로' 성당)

1986년 4월, 큰 딸 모린이 메주고리예에 다녀 온 후 저희 부부에게 꼭 메주고리예 순례를 하라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모린의 메주고리예 체험담은 웨인 웨이블의 "메주고리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메주고리예의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당시 23살이었던 4째 딸과 함께 12일 간의 순례를 갔습니다. 특별히 딸을 데리고 간 것은 세상의 수 많은 유희에서 보호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모님께 봉헌된 대성당에서 9일간의 묵주 기도를 드린 후 은행에서 \$5300불을 대출받아 순례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방방곡곡에서 온 60명의 안내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수녀님이 하셨습니다. 순례를 떠나기 전날 제가 메주고리예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동료 다섯명이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련해주면서 혹시나 제가 거짓 성모 발현지에 속는 것은 아닌지 무척 염려했습니다. 1986년 당시에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형사 (당시 제 직급)로서의 직관을 십분 활용하여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조사해 오라는 특명을 받은 순례자였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경배하여라!"

여러분들은 메주고리예의 수 많은 체험담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터이니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경찰 동료들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메주고리예의 모든 것



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찰했습니다. 십자가산에서 20톤 짜리 콘크리트 대형 십자가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기에 그 산에 특별 장치가 있는지 찾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행중의 한 순례자가 자신의 목주가 금으로 변했다고 해서 내 목주도 금으로 변할까봐 하루종일 쳐다보았지만 똑 같았습니다. 발현 목격증인들을 만날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귀담아 듣지 않고 경찰서 강력계의 유능한 형사답게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어느 새 나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온 목적도 잊어 버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시간도 마음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성 야고보 성당에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니 오, 웬일입니까? 태양이 신비스러운 빛을 사방에 발하며 빙빙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나이 든 여자들이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툭툭치며 "태양이 아니에요."하고 손으로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 아들 예수를 경배하여라!"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돌고 있는 태양이 아니라 성당의 감실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니까요. 성모님께서도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실안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자 메주고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때 부터 순례를 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주 시간을 내서 성체 조배를 하며 남은 순례기간 부디 제 마

음을 열어주시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녀님을 따라 순례자들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주제로 하는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히 보시어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 순례 마지막 날에는 일행들과 함께 성 야고보 성당에 가서 성모님께 우리들의 남은 삶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저와 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속에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적, 영적치유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 마을은 눈으로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척박하고 돌투성이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곳에 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모님이 현존하시는 메주고리에는 마음과 영혼으로 보고 듣는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변화된 삶...

순례에서 돌아 온 후, 주변에서는 제가 전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경찰서 형사로 누구보다 활발하게 살던 저의 변화를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저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는 바로 "사랑과 평화"일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할 때 변화는 저절로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총과 축복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한 없이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고자 노력하면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몇배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대하여 사실이다, 아니다 등등의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주장으



로 당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마을을 가보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에 많은 것이 변화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제가 형사직을 그만두고 부제가 된 것도 메주고리에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대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예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다음은 제가 오래동안 부제로서 봉사하던 펜실바니아 포코노산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부제직을 은퇴하면서 했던 마지막 강론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도 파티마, 가라반달, 루르드, 메주고리에 등의 수 많은 곳에 성모님의 발현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발현하시는 성모님 메시지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죄악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회개와 기도, 보속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속과 희생의 삶을 봉헌하여라. 세상의 쾌락과 물질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분별심을 퇴색케 하여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배척되는 위기가 올 것이다. 자유를 모방한 타락과 혼란이 세상을 영적으로 피폐케하여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성직자들의 사명 의식과 성소가 파괴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선한 지향을 가진 사제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미래를 부정하는 이들의 저지르는 죄악으로 순수한 영혼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성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낙태가 만연해지겠지만 죄를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낙태와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보십시오!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메시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누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명분도 없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태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부모에 의해 매일매일 수 많은 생명들이 낙태되고 있지만 법은 오히려 그 모든 죄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메시지는 현 시대의 상황에 대한 예언들로서 거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던 목격증인들의 시신들이 전혀 부패하지 않은 채로 발견된 예도 많습니다. 이는 복되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수 많은 예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불신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보상과 책임이 함께 할 것입니다!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욕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오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웹관리자 : 임 베드로,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최미정, 남 마카엘라, 김성주, 박 데레사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10-8633-3540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메주고리예의 열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린 탐슨 (잔 탐슨 부제의 딸)

1986년 4월 나는 메주고리예의 작은 마을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그곳이 가고 싶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께서 회심하라"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순례를 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평화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순례경비가 1300불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에게 1300불은 대단히 큰 거금으로서 간호 학교 학생이었던 나는 순례를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필라델피아 경찰서 형사이셨지만 5자녀들을 교육시키느라고 무척 빠듯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례를 간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복되신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예를 꼭 가고 싶은 열정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라서 포기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마련해주신 메주고리예 순례비용

나는 내 마음속에서 성모님을 뵙고 싶은 열정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꼭 순례를 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봉투에는 지난 4년간 학비를 많이 내서 차액을 돌려 준다는 내용과 함께 500불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례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말에 저는 미연방 세무소에서 온 또 하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1985년도 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설명서와 함께 500불이 넘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되신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직감하고 무조건 먼저 순례예약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으로 순례비는 마련되었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순례날자와 겹친 졸업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돈을 마련해주신 성모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성모님을 만나는 일을 첫번째 순서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고 무조건 교무실에 가서 순례를 다녀 온 후 졸업 시험을 보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내가 순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차선책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례에서 돌아오면 따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받은 저는 이번 순례는 하느님

당신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 해보였지만 성모님께 의탁하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루터교 신자인 웨인와이블씨와의 만남

4월 어느 날 나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는 일행들을 만나기 위하여 뉴욕의 JFK공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루터교 신자인 웨인 와이블씨는 천주교신자는 아니였음에도 성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긴 비행시간을 보내고 우리 일행이 도착한 드브로브닉 공항에는 전쟁으로 허리에 총을 찬 군인들로 가득 했습니다. 메주고리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던 일행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태양을 보세요!" 하얀 은빛처럼 변한 태양이 온갖 화려한 색들에 둘러 쌓여서 오색찬란한 빛을 뿜으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친해진 웨인 와이블씨와 나는 서로 "당신도 저 태양이 보이지요?" 하면서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에 도착해서 메주고리에 본당의 뽕죽한 두 탑이 보이자 모두 환호성을 쳤습니다. 1986년도의 메주고리에 마을에는 숙소도 식당도 없어서 우리 숙소는 메주고리와 3~4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숙소에서도 물 한컵을 마시기 위하여 몸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숙소라고 해도 저녁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례단이 메주고리에서 받은 은총과 축복의 시간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례기간 내내 우리 일행들은 십자가 산으로, 발현 산으로, 발현 목격증인들을 만나러 다니며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매일 3~4시간 걸리는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아니 기도를 제외

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메주고리에 있는 수 많은 순례자들의 일과도 똑 같았습니다. 하루 하루가 너무나 단순했지만 아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선물

드디어 꿈속같이 행복했던 메주고리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 날 새벽에 웨인 와이블씨와 나는 함께 십자가 산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수북한 산 주변에서 예수님 사진 한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로 다른 쓰레기들이 다 젖어 있었는데 그 사진은 이슬 한방울 젖지 않고 보송 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웨인 와이블씨가 사진을 가지려고 해서 나는 얼른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후에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지만 우리 일행들 중 그 누구도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십자가 산을 바라보던 웨인 와이블씨가 말했습니다. "모린, 저 산을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 산인데 그 자리에 있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10분 15분이 지나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돌아 왔어요..." 일행들은 십자가산을 바라보면서 멍있는 굿바이 키스를 날려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 온 나는 부모님에게 메주고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순례비를 대출받아 동생과 엄마와 함께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 오셨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가족들에게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 형사직에서 은퇴하고 부제가 되시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포코노 산 작은 마을에 있는 '고기를 낚는 어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오랫동안 부제직 봉사를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모님께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감실 앞에서 묵상하라고 하신 복음 말씀입니다.

하느님이나, 재물이나 (마태오 6, 24 - 3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

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 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M**

믿지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으며 나의 아드님의 양팔안으로 너희를 꾸준히 부르고 있단다.
나의 아이들아, 거듭 경고하는 일이지만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애원하면서 나의 아드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염려가 너희의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 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이 너희와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나의 아드님으로 부터 오는 감동을 받도록 성령께 기도하면서 희망이 없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느님의 빛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지금은 시련의 시기이니 손에 묵주를 들고 마음에 사랑을 간직하며 나와 함께 시작하자구나.
나는 너희와 함께 나의 아드님의 부활절을 맞이 할 것이다.
나의 아드님께서 선택한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안에서 늘 살아갈수 있도록 기도하여다오. 고맙다."

2012년 3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미리아나는 성모님께서 그곳에 모인 이들을 축복하시며 갖고 온 모든 성물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전하였다.)



기도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1)

평화의 모후로 오신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일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하느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전한다. 그녀는 1981년 6월 부터 현재까지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있으며 아홉 가지 비밀을 받았다. 마리아는 성모님께서 매월 25일 온 세상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번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질문 :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마리아 : 저는 성모님을 매일 뵙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믿음, 회개, 보속, 일주일에 두번 단식, 기도, 성사생활, 한달에 한번 고해성사, 그리고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당신의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초대에 더욱 깊이 응답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질문 : 더 깊은 응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질문 : 어떤 기도 말입니까?

마리아 :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며, 기뻐하신다고 성모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진심으로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느님을 위해 삶 속에서 하느님께 공간과 시간을 내어 드린다면 서서히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저녁 흰 베일을 쓰신 모습으로 오십니다. 발은 구름 속에, 머리는 검고 아름다우시며 눈동자는 푸른색이고, 머리에는 12개 별이 있는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질문 : 성모님의 품에 안길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마리아 : 성모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번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우리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애원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 슬퍼하실때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성모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지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을 뵈면서도 그분을 뵙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지요.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느끼실까요? 혹은 목격증인들에게만 특별한 것인가요?

마리아 : 성모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분은 모든 자녀들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개별적인 사랑을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분의 사랑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애원하시는 성모님...

느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나요?

마리아 : 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질문 :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질문 :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 갈까요?

마리아 :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그 의지로 하느님을 알수 있는 길과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 :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될까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을 아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발현하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당신을 찾아 오시나요?

마리아 : 발현 초기에 저희가 성모님께 여쭙 봤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이 세상의 아이들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저희들을 선택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질문 :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나요?

마리아 : 네, 바로 그것이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은총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 모님의 선택과 우리들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응답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은총은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신다지요?

마리아 :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모님의 메시지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응답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며 자유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 지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구요? 그럼 성모님의 메시지는 힌두교, 불교, 유대인, 개신교와 이슬람교와 무신론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까?

마리아 : 네, 이 메시지는 실천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마리아 :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있지만 기도안에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무엇보다 거룩한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거룩한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미사와 기도가 언제나 당신 삶의 중심에 있었나요?

마리아 : 오, 아니예요!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을 매일 7번 바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문 : 당신은 어떻게 응답했나요?

마리아 : 저는 "오, 성모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마리아 : 하느님께 제 삶의 전체를 기도로 봉헌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리아 : 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저희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 지도록 도와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위해 메주고리예에 오셨고,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 가시려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M**



20여년 동안 앓던 불치병을 치유시켜 주신 성모님

미셸 그래프스트롬 세퍼

2006년 10월 19일 나는 부모님과 함께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다. 이번 여행은 20년 전 부터 시작된 내 병의 치유를 위해 애써온 나와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내 병은 사람의 몸에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의 호흡과 에너지 생산에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세포 생물 학기능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상이다. 이병은 뇌, 신경, 근육, 눈, 배, 간, 호흡계 등등 신체 기관의 광대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동안 수 많은 테스트와 MRI 검사의 최종 결과로 머리 대뇌의 전면부분에 있는 흰색 신경 섬유인 전두엽이 파괴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바이올린 연주자로 성당과 학교에서 음악봉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연주를 할 때마다 팔과 다리에 숨이 멈추는 듯한 강한 통증이 와서 몹시 고통스러웠다.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힘을 잃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단순한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들과 지낼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하고 간절한 꿈이 있었기에 나는 이 무서운 병마와 맞서 싸울 힘을 달라고 매일 간절하게 기도드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몸의 병마는 엄청난 고통으로 나의 삶을 어렵게 덮어가고 있었다. 결국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나의 희망도 그토록 사랑하는 바이올린 연주도 포기하고 말았다. 어느 날, 부모님은 나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를 가자고 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오랜 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던 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설레임으로 따라 나섰다.

성모님과의 만남

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부모님과 고모, 나를 포함한 44명의 순례단은 잔신부님과 함께 메주고리로 떠났다. 순례를 떠나기 전 날, 그동안 기도해준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기도 지향들을 받았다. 그것은 20여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 해준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보답이었다. 메주고리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성모님의 품 안에서 위로 받고자 찾아 오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두 열렬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무척 감격스러웠다. 다음 날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우리일행은 발현 중인 비스카를 만나기 위하여 발현산 쪽으로 갔다. 산비탈을 등지고 있는 비스카의 집 앞 마당과 주변의 좁은 길목에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비스카는 45분 동안 자신의 체험과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했다. 비스카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에는 단순하지만 큰 힘이 있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

비스카와의 만남 후, 우리 일행은 1981년 6월 성모님이 처음으로 발현하신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 산을 꼭 올라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몇 달 전에 무릎을 다친 어머니

와 나는 발현산에 올라 갈 힘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산 밑에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나와 아버지는 갑자기 "비스카, 우리 미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깜짝놀랐다. 비스카가 집앞 베란다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본 어머니가 비스카집 계단을 오르면서 외친 소리였다. 어머니의 열정은 즉시 믿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다. 비스카가 우리 곁으로 와서 안수기도를 해 준 것이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지금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던 비스카의 뜨거운 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체험은 그 후에 있을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일들의 전조였을 뿐이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일행은 요조 죠브코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은 치유시간에 순례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성모님 사진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성모님을 바라보세요. 어머니이신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가슴에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해 드리세요." 그러자 곳곳에서 흐느껴우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성모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입술이 움직이며 "내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그 사진을 내 가슴 깊이 꼭 안아드렸을 때, 성모님께서 나의 어머니가 되시어 마음 깊이 들어 오시는 것을 체험했다. 사랑하는 엄마, 성모님을 만난 행복한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다시 성모님의 사진을 가슴속 깊이 꼭 안았다. 그러자 갑자기 마치 내 심장이 마치 활활타고 있는 뜨거운 석탄 조각이 닿은 것처럼 온 몸이 뜨거워졌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하신 성모님이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지난 20여년 동안 병으로 지친 당신 딸의 아픔들과 삶의 상처들이 그 울음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계셨다.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에 온몸을 맡기는 것뿐이었다.

요조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주신 5개의 조약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 기도 (특히 마음을 다한 묵주기도)
2. 성서(하루에 한번이라도...)
3. 고해성사(한달에 한번이라도...)
4. 단식(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물과 빵만으로...)
5. 성체성사(자주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모실 것...)

강론 말씀후 요조 신부님은 순례자들에게 치유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그 순간 또다시 뜨거운 성령의 강한 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느끼며 힘없이 쓰러졌다. 너무나 편안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느끼는 그 평화가 사라질까봐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수 많은 지난 일들이 한 순간의 꿈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디에서 비추이는 불빛일까... 춤추듯이 흔들리는 그 불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날 밤, 나는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동안 나는 고해성사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보는 고해성사에 대한 기대속에서 신부님과 마주 앉았다. 그러나 신부님은 나에게 사람이 하는 말에서 답을 찾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셨다. 기대감이 무너진 때문인지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말이 안되지 않은가! 몇 천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지금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날 새벽, 일행들과 함께 십자가 산에 올랐다. 바위투성이 십자가 산에는 곳곳에 예수님의 고통이 담겨 있는 14처가 있었다. 그 앞에서 잠시 묵상하면서 산을 오르니 두 시간정도 지난 것 같았다. 십자가 산의 정상에 올라 맑은 새벽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안내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곳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다. 십자가산은 메주고

"이제 됐다. 일어나거라!"

리에의 특별히 거룩한 영적인 장소이고, 마음 깊은 기도를 모두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 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침묵속에서 기도하면서 친지들이 부탁했던 기도지향들을 모두 그 십자가 앞에서 봉헌했다. 그 순간, 갑자기 긴급한 느낌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간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 해달라고, 하느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길 힘을 달라고 애원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봉헌을 하고 내 안에 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다. 내 영혼의 깨어남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강한 부르심을 들었다.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그저 생각으로 느낀 것인지는 나는 모른다. 다만 그 말에 순명하여 십자가 앞으로 갔을 뿐이다. 두 손으로 십자가를 만지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태어나서 처음보는 찬란한 아침 햇빛이 아름답게 쏟아지고 있었다. 일기 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양이 춤을 추듯 움직이더니 두 개가 되었다! 잠시 후 자욱한 연기 모양의 구름이 두 개의 태양을 가리더니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춤을 추듯이 움직였다. 그 날 새벽 그 십자가 앞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두 여인이 함께 있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무릎을 꿇으라고 다시 속삭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버티던 중 갑자기 어떤 힘이 내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밑으로 몸을 밀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항할 틈도 없이 고꾸라지듯 앞으로 넘어졌다. 몸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강한 힘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훨씬 더 깊은 기도를 드렸다. 20년 동안 앓은 내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메주고리에 온 것인데 그 순간에는 단 한마디도 내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20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입안으로 뜨거운 열이 들어 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누르고 있던 힘의 무게가 사라지고 어디선가 "이제 됐다! 일어나 거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

르게 물었다. "이제 되었다니요?" 같은 음성의 소리가 말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런데 평소애 몸을 일으킬 때 온 몸으로 느끼던 그 끔찍한 고통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되다.

산에서 내려가는 걸음이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가벼웠다. 용솨음 치는 힘이 이끌려서 바위 투성이 험한 산을 날아가듯이 내려왔다. 산 밑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겨우 22분만에 산을 내려 온 것이 아닌가? 올라 갈 때는 2시간이 걸렸는데 겨우 22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숙소애 도착한 나는 계단을 날라가듯이 뛰어 오르며 이층으로 올라갔다. 오, 예전 같으면 고통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를 메주고리에로 데려오신 부모님이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꼭 안아 드렸다.

그 날 미사후, 체나콜로에서 마약과 알콜로 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기도로 변화된 아름다운 체험담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산에서 아침애 있었던 일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 내가 땅 바닥애 던져지다시피 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사실이었을까? 혹시 그냥 상상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모든 것에 분심이 들면서 아침애 느꼈던 기쁨은 사라지고 혼란스러웠다. 마침 그 곳의 성물 가게애 들렀을 때, 일행 중 한 자매애 내게 와서 말했다. "오늘 아침 십자가 산에서 당신을 봤어요." 나는 조금만 마음으로 되물었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다구요?" 그녀애 말했다. "하늘에서 어떤 뜨거운 열기가 내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당신이 어떤 힘애 의하여 마치 땅바닥으로 던져지듯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새벽애 십자가 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믿을 수 있었다.

평화와 기도의 마을 메주고리를 떠날 시간이 되어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았다. 파견 미사가 시작되기 전, 안내인 이반카는 나와 부모님애게 그 날 새벽 십자가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도 보았노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바닥으로 넘어지듯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곧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고 한다. "어머니애 돌아가신 후 나는 비스카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비스카가 성모님의 발현을 보기 전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방안에 가득 들어 왔었지요. 그때 비스카의 몸이 당신처럼 방바닥에 던져지듯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반카는 내 몸이 마치 '로켓'처럼 직선으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무려 10여분간 그렇게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쓰러지면서도 앞으로 쪽 내민 내 왼팔은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 팔은 20여년동안 앓은 병의 후유증으로 그런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수 년이 지나 있었다!

마음을 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는다!

평화롭고 거룩한 마을 메주고리예를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나와 주변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여년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2006년 10월 순례에서 돌아온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 순례전에는 1파운드의 가벼운 것도 들지 못해 물리치료 도구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던 내가 이제는 10파운드 무게도 손쉽게 번쩍 들고 있다. 담당 의사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치유된 것인지 이해 하지는 못하지만, 병이 치유된 것은 크게 기뻐해준다. 내 병의 초기에 받은 진단을 보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묻는 의사도 많다. 그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제는 당신들이 믿을 차례입니다!

"예전에 저는 길으로는 분명 좋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 순례 때 제가 하느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분께 다시 돌아가고자 간절히 애원하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성모님께서 도와주시어 하느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세상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일들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믿을 차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통속에 살아왔지만 그 병은 제 인생의 속도를 늦추어 주고 제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은총을 얻어 주었습니다. 2006년 10월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잦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에 있건 그분들은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



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앓고 있던 제 병의 치유는 부모님과 이웃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회심을 도와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음을 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제게 기도지향을 주었던 이들에게도 기도 응답으로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의 손자는 청각을 모두 잃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청각이 95퍼센트 정도 회복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였던 제 친구는 자신이 장애인 동생을 돌볼 수 있도록 치유해달라는 기도지향을 적은 편지를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친구의 유방암은 다 치유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기도 지향대로 장애인 동생을 보살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드린 기도지향의 열매는 커져만 갑니다. 모두 자신들의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불어 자신들의 기도 지향도 응답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순례에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몇배로 갚아 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수천 명의 천주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저의 체험담을 증거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기도의 응답, 특히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으니까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M**

〈체험담을 보내주신 미셸 그래프스트롬 세퍼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에 대한 문의는 610-366-9612/917-626-431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성모님 발현 31주년 기념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성지 순례

일시 : 2012년 6월 22일 ~ 7월 1일 (9박 10일)

경비 : New York JFK공항 출발 \$2,770 (선착순 25명 기준)

메주고리에 : 목격증인들의 발현 참석, 십자가산, 발현산, 청십자가, 부활청동상,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 자들의 공동체 방문 및 그들의 체험담. 발현 목격증인들과 메주고리에 본당 및 프란치스카 수사 신부님들의 체험담. 메주고리에 순례 및 성모님을 통하여 변화된 이들의 신앙 체험 간증. 매일: St. James성당의 야외제대에서 진행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저녁예절 참석 (목주기도, 거룩한 미사 및 치유예절, 메주고리에 특유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성체 현시의 성시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기쁨과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현존하심을 체험 합니다.)

드브로브닉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 Dubrovnik방문, 목의 치유 브라시오 성인 성당 방문, 1700년된 성 실바노 성인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가 모셔진 성당 방문, 아기에수님의 강보와 성 십자가 조각 및 많은 성인들의 유물이 (130이상) 모셔진 주교좌 대성당 방문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대회 루르드, 이태리, 드브로브닉 성지 순례

일시 : 2012년 7월 29일 ~ 8월 12일 (14박 15일)

지도신부 : Fr. Julian C. Reddy (청소년 특별사목)

경비 : New York JFK 공항 출발 \$3,750 (선착순 25명)

이태리 : 란치아노 성체성혈 기적성당,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무덤, 기념성당, 성글라라성당, 천사들의 모후(쁘르지움폴라)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던 구유가 보존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성요한 대성당,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오셨던 성계단 성당, 카타콤바 지하 공동 묘지, 트레비 분수

루르드 : 성모님 발현 기념성당, 성체거동, 촛불행렬, 발현동굴, 기적수침수, 벨라뎃따성녀 생가, 십자가의 길, 루르드 산성
메주고리에와 드브로브닉 순례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주관 : 평화의 모후선교회 안내 : 남 그레고리오

문의 : 610-366-9612 / 917-626-4314 (cell) / E-mail: qpmm.org@gmail.com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방에 초대합니다.

보내주시는 미사 및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 * 매주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 *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때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 메주고리에 발현 목격증인들을 통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6시 4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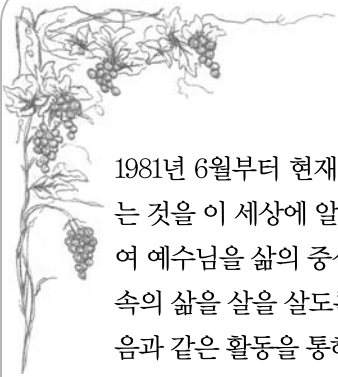
보내 실곳 : 평화의 모후 선교회 기도방
www.qpmm.org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10-8633-3540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

성모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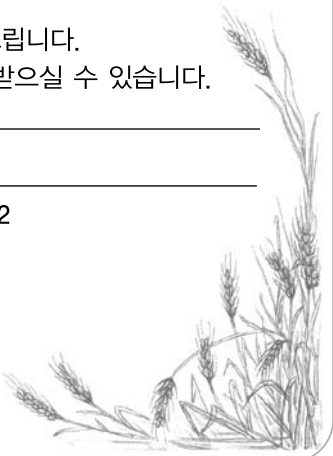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선교회의 신부님들께서 회원들을 위하여 매일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3. 매월 첫토요일 성모 신심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미국·캐나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 : 610-366-9612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회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프라자 109호
 ☎ : 010-8633-3540
 예금주: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은행: 농협은행
 계좌 : 351-0404-6506-03

E-mail: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미령, 강복임, 강옥주, 고민자, 권금옥, 권스티브, 귀연, 김건일, 김정숙, 김골롬바, 김금성, 김단심, 김마데라, 김막달레나, 김말가리다, 김미란, 김미행, 김복순, 김부영, 김세복, 김성수, 김소진, 김수호, 김숙희, 김아네스, 김안나, 김에밀리아, 김영옥, 김영자, 김옥경, 김옥분, 김율리바, 김유경, 김유정, 김운태, 김정심, 김정자, 김짬마, 김중환, 김창근, 김춘자, 김필선, 김혜숙, 김한기, 김효안, 김효정, 김희숙, 김희진, 남옥희, 류숙자, 문경자, 문로사리아, 민정숙, 민필선, 민해레나, 박경옥, 박경희, 박남정, 박능갑, 박아르타, 박막달레나, 박병철, 박선희, 박성자, 박수자, 박숙진, 박순더, 박신희, 박영실, 박영철, 박영화, 박옥순, 박정자, 박정희, 박카타리나, 박혜선, 박희숙, 방수희, 배정희, 배낙현, 백안셀모, 서석래, 서영자, 서정은, 성문선, 송마리아, 송세실리아, 송정순, 송종식, 신세실리아, 신영선, 신혜경, 신현철, 심문자, 심세실리아, 심혜란, 안미령, 안세베리노, 양동선, 양미녀, 임봉화, 임연희, 여선옥, 오서왕, 오세은, 오미숙, 우갑선, 유규희, 유베로니카, 유옥경, 유영희, 윤경이, 윤길자, 윤대희, 윤석조, 윤은순, 이갑희, 이강빈, 이강임, 이정미, 이경열, 이경호, 이계숙, 이광자, 이그레고리오, 이근행, 이다영, 이데레사, 이동우, 이마리아, 이문자, 이명진, 이민선, 이상명, 이상환, 이성주, 이수지, 이순세, 이아일린, 이연기, 이영분, 이옥별, 이윤희, 이운영, 이은정, 이은희, 이인석, 이인영, 이재권, 이준용, 이정옥, 이정희, 이주상, 이주혜, 이지연, 이찬기, 이카타리나, 이희아, 이희자, 이형태, 임가경, 임윤순, 임종애, 임주자, 임희자, 장봉석, 장이분, 장종순, 전경자, 전득기, 전영애, 전현숙, 정금희, 정명도, 정명희, 정옥순, 정은미, 정의교, 정현지, 정희순, 조관현, 조동진, 조성희, 조용옥, 조혜경, 주세실리아, 주숙은, 지니킴, 지병철, 지정혜, 진도미니카, 진은필, 차선미, 천병열, 최가숙, 최미카엘라, 최상환, 최성구, 최성국, 최스텔라, 최정식, 최정신, 최종권, 최지희, 최호선, 최희순, 최혜선, 추호숙, 탁율리아나, 한경열, 한기남, 한기순, 한테레사, 한정애, 홍경복, 홍복희, 홍제시카, 황계희, 황계자, 황금자, 한혜식, 용기 커뮤니티 한인 청년들, 익명.

Tak Lee, Cynthia Ziegmann, Louis Okson, Julie Pyo, Beom Lee, Nansoon Buffington, Chung Suk Dardy, Eileen Cho, Sung Hi Stiebel, Monica Guthard, Kim, Myong Spence, Jane An, Taphorn Chong Hui, Matha Hong, Dunnigan Suk-Ta, Sun Lamb, Insuk Mullins, Young Kim, Chang Residence, Turk Chae, Sook Walker, Henry Yerger, Peterson Kelly, Lisa Rigoni, Mary Lee, Chung Paeng, Valentina Kim, Yon Suk Johns, Ok Pyo Hong Santos, Barbara Alonzo, Hee, Lee, Myong Russel, Ok Son Baker, David Burger.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12년 동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는 "평화의 모후" 소식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 "평화의 모후" 소식지는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으로 지난 12년 동안 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미주 전 지역과 한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 등의 전 세계에 성모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가톨릭 비영리법인이며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ELLS FARGO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미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은행 : 농협 은행
계좌 : 351-0404-6506-03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88-9612 |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 010-8633-3540

E-mail: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이사회원 일동 - 임 베드로, 김호용 아브라함,
성시용 대건 안드레아
남 그레고리오, 이준용 꼴베
편집위원 일동 - 남 미카엘라, 최미정 레지나,
김성주, 박 소화데레사

U.S.A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KOREA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CANADA

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PRSR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5